

‘스마트 기술·돌봄망 결합’ 순천형 약자복지 구축

AI 안부 살핌 3종 케어 운영…사람 중심 모니터링 체계 생활안정비 지원…“민관협력 시민 주권 복지도시 조성”

다변화된 복지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가 ‘순천형 약자복지 안전메트’를 구축하며 시민의 일상을 촘촘히 살피는 생활밀착형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순천시는 AI·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사회 인적 네트워크를 결합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도시 순천’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다변화·고립화되는 현대 사회의 위기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과 스마트 솔루션을 접목한 상시 돌봄 안

전망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 사회복지 공무원의 대면 방문에 더해, 자동 감지 시스템을 통해 위기 징후를 파악하는 ‘AI 안부 살핌 3종 케어’를 운영한다.

주 2회 AI가 안부 전화를 거는 ‘순천케어콜(310여가구)’, 전력 및 조도 변화를 실시간 분석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돌봄플러그(100가구)’, 스마트폰 미사용 시 지정 보호자에게 SOS 메시지를 발송하는 ‘순천살핌앱(2790여가구)’을 확대해 총 3200여가구를 돌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우체국 집배원(왼쪽)이 생필품 박스를 전달하며 대상자의 안부를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청

말보다 300여가구 증가한 규모다.

7월부터는 한전 및 행복커넥트와 협력해 동지역 고독·고립 고위험군 280가구를

대상으로 전력·통신 데이터를 통한 분석하고, AI 전화를 시작으로 관제센터의 상황 확인을 거쳐 현장 출동으로 이어지는 3

단계 ‘AI 안부든든 서비스’를 새롭게 가동하고 있다.

시는 지역 내 이웃과 생활 업종 협력망을 활용한 ‘사람 중심의 돌봄 네트워크’를 촘촘히 엮어낸다.

우체국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읍·면 지역 고독·고립 고위험 30가구를 대상으로 월 2회 생필품 택배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마음 있는 안부 배달’사업을 가동한다.

택배 미수령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읍·면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법적 기준에 미달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순천시민의 차별화된 ‘생활밀착형 일상복지’ 사업을 펼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자격이 중지돼 급작스러운 생계 절벽에 직면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순천형 생활안정비’를 지원한다.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의 50%를 최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위기가구가 자립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생계 부담을 완화해 생활 안정을 돕는다.

손호보 순천시장은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는 소통형 행정과 첨단 스마트 기술의 결합이 바로 순천형 약자복지의 핵심이다”며 “AI와 스마트 기술로 위기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고, 이웃과 민·관이 온기를 더해 사각지대를 메움으로써 ‘시민 주권 복지도시 순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구례 지역사회 나눔활동 확산 5일시장서 열음물·식혜 나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은 지역 봉사단체 산애살애와 함께 최근 구례5일시장 일원에서 ‘열음물·식혜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산애살애 회원 등 10여명이 열음물과 식혜 1000여개를 준비, 무더위 속 장을 찾은 상인과 이용객들에게 직접 나눠주며 갈증 해소를 도왔다.

문승욱 구례군의회위원장, 김우정 부의장, 서연희 의원도 함께하며 폭염 속에서도 생업을 이어가는 상인들과 장을 찾은 주민들을 격려했다.

한편 산애살애는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3·1절을 맞아서는 독립유공자 박경현·왕재일 선생의 동상 환경정비에 나섰으며,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는 현충공원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마산면 냉천경로당, 지리산국립공원, 구례동중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4개 장소에서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등 ‘온기 나눔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박만우 산애살애 회장은 “폭염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지키는 상인들과 장을 찾아주시는 주민들께 작은 힘이 되고자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례=이민구 기자 mingu9942@

장흥, 한우 품질 경쟁력 강화 농가 교육…브랜드 가치 향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은 최근 통합의학컨설팅센터에서 ‘장흥진장흥한우 사육농가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축산환경에 대응하고 농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가족질병 예방관리와 한우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유대성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한우농장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 및 관리방법’을 주제로 질병 발생 원인과 예방 관리 방법을 교육했다.

정종학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문위원은 ‘등급판정 및 한우 사양관리의 이해’를 주제로 등급 기준과 품질 향상을 위한 사양 관리 방법을 전달했다.

참석 농가들은 두 강사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한우 사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장흥한우브랜드 가치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영수 기자 jms0503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은 지역 봉사단체 산애살애와 함께 최근 구례5일시장 일원에서 ‘열음물·식혜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청

곡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조리비 지원

회복 서비스·출산 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 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따라 전체 이용 요금의 90%까지 지원하고 있어 산모의 산후 돌봄 비용 부담을 낮추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관련 기준에 따라 전정어머니나 시어머니 등 가족도 일정한 교육과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공 인력 등록 절차를 거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시 낮은 사람에겐 신생아를 맡기는 데 부담을 느끼는 가정은 가족이 직접 돌봄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산후 돌봄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한 후 제공기관을 통한 등록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군 관계자는 “출산 후 산모가 충분히 회복하고 신생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산후돌봄 환경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출산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곡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이용 자격과 가족 제공 인력의 교육 및 등록 요건,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 등은 대상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보건의료원에 문의할 수 있다.

곡성=김유민 기자 hnnews1@

드론쇼 관람장소 ‘고흥전통시장’ 변경

상권 연계…28일 1500대 규모 특별공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8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개최하는 고흥읍 드론쇼와 버스킹 공연의 관람장소를 오는 28일부터 기존 고흥군민광장에서 고흥전통시장 인근으로 변경한다.

지난해부터 개최한 고흥읍 드론쇼는 고흥군민과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군청사 앞 군민광장에서 진행해 왔지만 지역 상권 활성화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수제맥주 브루어리가 위치하고 별야시장이 열리는 고흥전통시장 인근으

로 드론쇼 및 버스킹 공연 관람장소를 변경해 행사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전통시장 및 주변 상권으로 관광객과 군민의 발길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군은 사전에 드론 이착륙장으로 고흥동초등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협의를 완료했으며, 드론쇼 운영업체는 안전한 공연을 위해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특별비행승인을 받았다.

또 관람장소가 변경되는 만큼 군민과 관람객들이 변경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드론쇼 공식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마을방송을 통해 행사 일정 및 운영 사항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고흥읍 드론쇼는 관람장소 변경 후 처음 개최되는 공연으로, 기존 900대에서 600대를 늘려 총 1500대 규모의 특별공연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드론쇼 장소를 전통시장으로 변경한 것은 드론쇼의 불거리와 별야시장, 수제맥주 브루어리 등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며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고흥군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여수, 섬박람회 기간 여객선 운임 반값

해상교통비 지원…섬 관광 접근성 높여

전남광주특별자치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여수 전역의 섬 관광 활성화와 방문객 유치를 위해 관내 여객선·도선 전체 항로를 대상으로 타지역민 여객운임(차량운임 제외) 50%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섬박람회가 개막하는 9월부터 연말까지 운영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당초 시는 섬박람회 기간 동안 부흥사장이 개도와 금도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섬박람회 개최 효과를 여수 전역으로 확산하고 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관내 전체 여객선·도선 항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박람회 기간 중 여수시

관내 여객선과 도선을 이용하는 타지역민은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예매·발권 단계에서 유류할증료와 터미널 이용료를 제외한 여객운임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녹동~거문항을 운항하는 여객선인 평화해리11호와 은해페리호, 한국해운조합 여객선 운임지원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정기 운항 도선인 제2월호호, 여수경도골프엔리조트호, 부도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섬박람회를 계기로 더 많은 관광객이 여수의 아름다운 섬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도록 여객운임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여수 전역의 섬이 매력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영민 기자 swg3318@



광양, 시민 중심 행정 대전환…의견 간소화

시장 소개 ‘마지막’·축사 ‘3분 이내’…실무안내서 부서 배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민선 9기 핵심 시정 가치인 ‘시민 중심 행정 대전환’의 일환으로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시민 중심의 의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광양시 의견 간소화 지침’을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시 주관 행사는 물론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사와 시민단체 행사 등에도 적용되며 시민 중심 소통 의견, 의견 작성 등 유관기관장 소개가 모두 마무리된 뒤 마지막에 소개된다. 이는 참석 내빈과 시민을 예우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취지다.

행사장 앞자리를 차지하던 지정석은 최소화하고, 어르신과 장애인 등 배려가 필요한 시민을 위한 좌석을 우선 배치한다. 내빈 도착을 기다리느라 행사가 늦어지는

관행도 개선해 정시 시작을 원칙으로 하고 참석 시민들의 불편을 줄인다.

행사의 본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축사 운영 방식도 간소화한다.

축사는 행사와 직접 관련된 인사를 중심으로 3명 이내로 제한하고, 1인당 축사 시간도 3분 이내로 하도록 권고한다. 내빈 소개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소개 대신 영상이나 자막을 활용해 소개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또 내빈 맞이를 위해 다수 직원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도열이나 행사 진행 중 과도한 수행 안내를 지양하고, 담당 부서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배치해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인다.

시는 이번 지침을 반영한 ‘민선 9기 의견 실무안내서’를 전 부서에 배포해 행사 현장에서 일관된 의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lkjin@gwangnam.co.kr